



## 지금 경제주체의 심리상태

### 1. CB 소비심리지수 쇼크는 불확실 해소요인

-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르게 회복한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는 7월 91.7pt에서 8월 84.8pt로 -6.9pt 급락. 정책효과 소멸에 따른 공포가 강하게 반영. 소득 중위계층인 연소득 \$50,000 이상 그룹에서는 -2.7pt 하락에 그침.
- 자동차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7월 대비 구매 의중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감소로 해석. 락다운 조치 당시 지급되었던 실업보조금 등 이전소득을 통해 이미 내구재를 구매했다는 사실.

### 2. 코로나19 재확산과 한국 소비심리

- 8월 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비 +4.0pt 증가한 88.2pt를 기록. 동 조사의 조사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였기 때문에 광복절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던 한계점이 존재.
- 금번 재확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는데, 지난 3월 대구지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음. 대구의 소매판매는 전국의 6.35% 수준인데, 서울과 경기를 합한 소매판매액은 전국의 56.29%를 구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 3. 기업경기에 대한 강건성 유지

-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크게 반등. 주목할 부분은 수출기업의 업황 BSI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 수출기업의 업황 및 전망지수가 상대적으로 내수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소비주체보다 생산주체에의 충격이 적을 것으로 기대.
- 8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은 낙폭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전년비 -7.0%를 기록하였는데,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3.7% 수준으로, 지난 2분기 수출 감소폭보다 큰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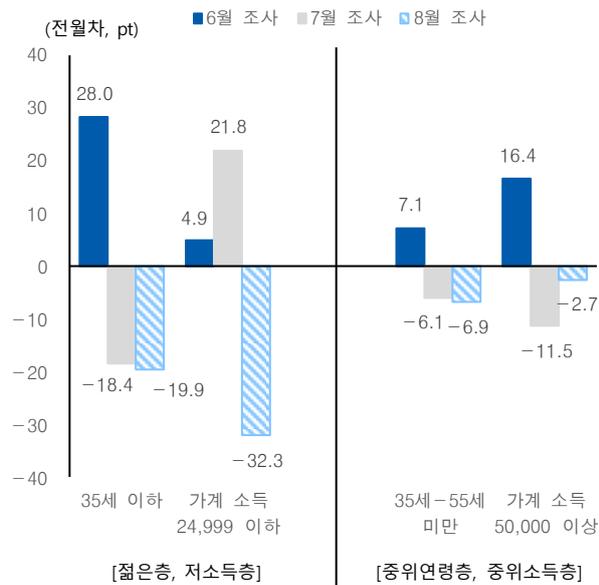
1. CB 소비심리지수 쇼크는 불확실 해소요인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르게 회복한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는 7월 91.7pt 에서 8월 84.8pt 로 -6.9pt 급락했다. 회복세를 이어가던 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수가 급락했던 지난 4월의 85.7pt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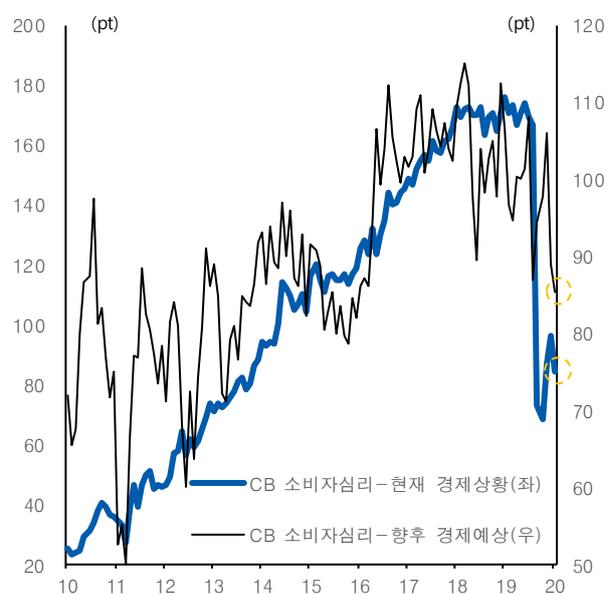
8월 소비자심리 지수의 하락은 정책효과 소멸에 따른 공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별로 35세 미만 조사 그룹에서 전월비 -19.1pt 급락이 발생했으며, 연소득 \$25,000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32.0pt 급격한 심리 둔화가 발생했다. 반면 중위계층인 연소득 \$50,000 이상 그룹에서는 -2.7pt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지난 6월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둔화는 향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베이자료에서는 향후 6개월내 내구재 구매 계획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7월 대비 구매 의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이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6월 소매판매 데이터를 복기해 추론해볼 수 있는 점은 락다운 조치 당시 지급되었던 실업보조금 등 이전소득을 통해 이미 내구재를 구매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 의증이 감소한 것이고, 이미 구매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확실성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차트1]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르게 회복하던 소비자심리는 2개월 연속 둔화.



[차트2] 젊은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심리가 크게 둔화된 반면, 중위연령층, 소득중위계층의 심리 둔화는 크지 않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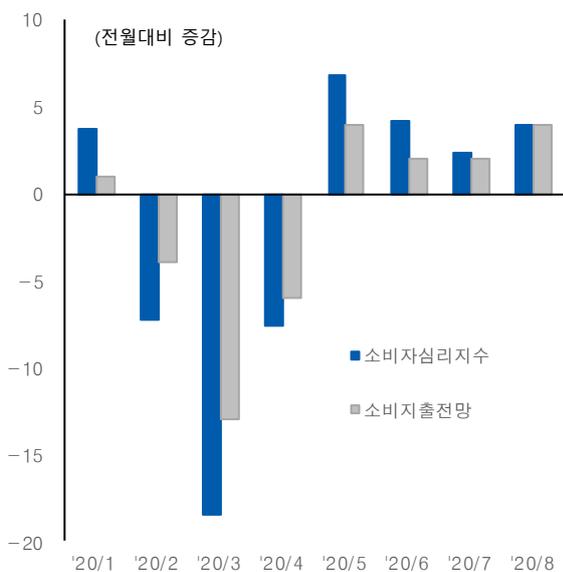
2. 코로나19 재확산과 한국 소비심리

한국은 8월 중순까지 긍정적 흐름의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7월 3대 실물지표인 소매판매, 산업생산, 설비투자는 모두 전월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8월 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비 +4.0pt 증가한 88.2pt 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등의 효과로 지출전망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장기평균치인 100pt 에 거의 근접한 99pt 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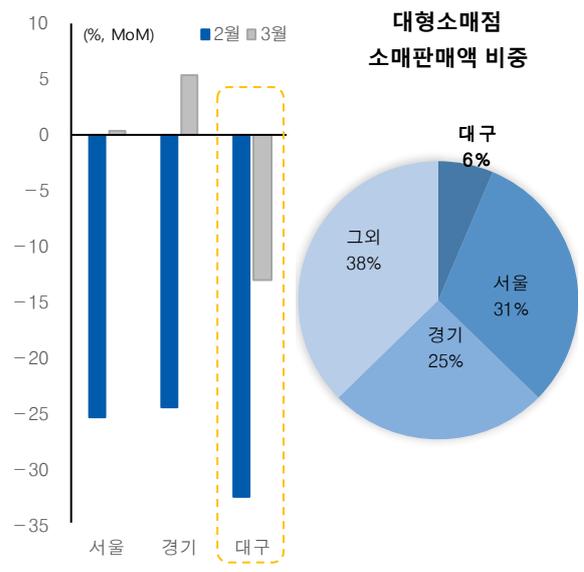
그런데 동 조사의 조사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였기 때문에 광복절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사시점상의 한계로 인해 소비심리 개선 속도는 다시금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 재확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는데, 특정지역 감염확산 사례인 인천지당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구지역의 소매판매는 다른 지역 대비 큰 폭의 월간 감소폭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심리도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수도권 위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 더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 대구의 소매판매는 전국의 6.35% 수준인데, 서울과 경기를 합한 소매판매액은 전국의 56.29%를 구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차트3] 소비자심리의 전월대비 회복속도는 7월까지 진정되었으나 다시금 8월 기준으로 상승폭 확대.



[차트4] 지난 3월 대구의 지역감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도권 소매판매 규모는 대구의 10배 이상.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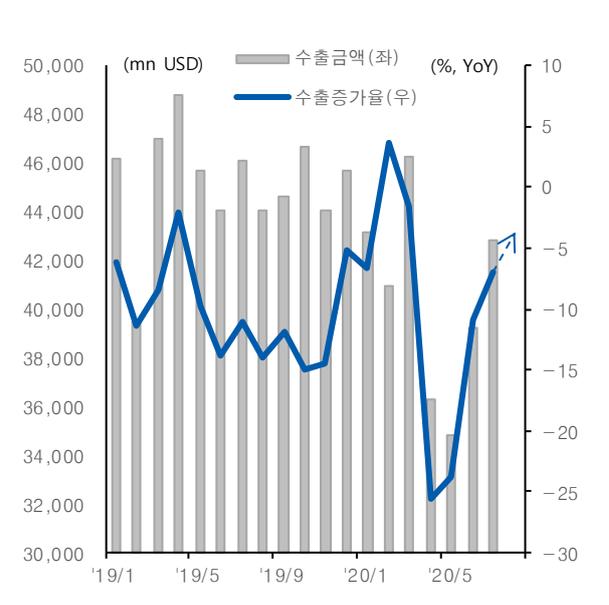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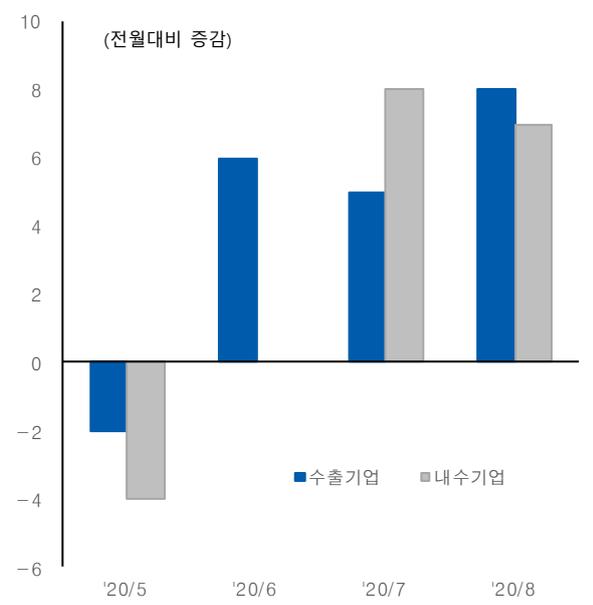
### 3. 기업경기에 대한 강건성 유지

소비자심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업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 대비 +7pt 상승하였고, 다음달 전망지수 역시 지난달 대비 +7pt 상승을 달성하면서 기업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출기업의 업황 BSI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동 조사 역시 시점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수출기업의 업황 및 전망지수가 상대적으로 내수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이 한국의 리스크에 집중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주체보다는 생산주체에의 충격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8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은 낙폭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전년비 -7.0%를 기록하였는데,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3.7% 수준으로, 지난 2분기 수출 감소폭보다 큰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출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의 연관성이 높은 소비항목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차트5]** 업황실적 평가는 7월 기준 내수기업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교역경기 개선에 따라 수출기업 우위 전환. **[차트6]** 한국 8월까지의 수출은 전년비 -7.0%이며, 일평균수출 기준 -3.7%까지 낙폭을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